



## 지역별 임금불균형에 관한 연구

---

저자 (Authors)	서준교, 이성근
출처 (Source)	<a href="#">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a> , 2018.6, 174-187 (1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지역개발학회</a>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URL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7564403">http://www.dbpia.co.kr/Article/NODE07564403</a>
APA Style	서준교, 이성근 (2018). 지역별 임금불균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174-187.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18/12/01 17:01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지역별 임금불균형에 관한 연구

서 준 교(영남대학교)\*

이 성 근(영남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소득양극화와 임금분배 악화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그간의 연구의 대상이 전국단위이거나 내용이 임금불균형 결정요인에 국한된 것을 지적하며, 지역별 임금불균형 현황을 다양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하였다. 지역별 임금불균형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활용하였으며, 임금불균형분석은 지니계수, 10분위분배율, 10분위배율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지역의 임금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가지 분석 모두에서 최근 5년간 임금불균형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개선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지역별 임금불균형은 대전이 타지역과 비교해 양호하고, 경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지역과 비교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대전도 임금불균형 수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주제어:** 임금불균형, 지니계수, 10분위분배율, 10분위배율

## 1. 서론

우리나라는 노동소득이 직무성과와 관계없이 직장파와 직위에 의해 결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 집단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0%에서 2005년 11.3%, 2010년 12.7%로 변화하였고, 2015년 14.2%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국가별 상위 1% 소득 비중은 미국 21.2%, 영국 12.8%, 일본 10.5%, 프랑스 8.6%, 스웨덴 8.8% 등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영미권보다는 낮고 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 영남대학교 시간강사(주저자)

\*\* 영남대학교 명예교수(교신저자)

소득양극화와 임금분배 악화현상의 원인분석과 대안모색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임금불균형에 대한 진단은 주로 전국단위에서 논의되어 왔다. 지역이 산업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되는 구체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단위의 임금불균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별 고유한 지리적 특성과 경제·산업구조, 지역별 인구구조학적 특성 등의 차이는 지역별 임금 구성의 차이를 가져오며, 나아가 지역별 임금불균형 구조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장연주·이민환·황한식, 2011).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임금불균형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경제정책은 물론 지역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하창현, 2007).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별 임금불균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월평균임금 현황을 살펴보고,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율 등을 활용해 지역별 임금불균형을 분석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2.1. 지역별 임금불평등의 원인

여기서는 임금불평등의 일반적 원인과 지역별로 임금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임금불평등의 일반적 원인은 고학력화와 고령화, 기술변화,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고학력화와 고령화이다. 많은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학력화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학력층과 고령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임금불평등이 큰 경향이 있다. 고학력층에는 최고 경영층부터 말단 사원까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직업군이 분포하는 경우가 많고, 고령층의 경우에도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인생의 정점을 즐기는 사람들부터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해 제2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른 연령대보다 좀 더 다양한 커리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인구집단 안에 고학력자,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면 임금불평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Dinardo, Fortin, & Lemieuc, 1996).

둘째, 기술변화이다. 자동화, 컴퓨터화, IT 기술의 발달은 이들 기술을 만들어내는 전문기술직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이로 인해 필요 없어지는 직업의 수요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Juhn, Murphy & Pierce, 1993). 기술변화에 의해 숙련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숙련수준이 낮을수록 일자리가 적게 늘어나, 이로 인해 노동수요가 높은 고숙련 일자리는 임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노동수요가 낮은 저숙련 일자리는 임금이 정체되어 임금불평등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성재민, 2015).

셋째,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이다. 이미 세계시장에 노출된 기업과 산업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보호를 받던 기업과 산업까지 무한경쟁시스템으로 몰아넣었다.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인력이나 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해외이전 또는 외주로 돌려 생산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핵심경쟁력의 유지 및 확장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핵심인력과 주변인력으로 나누어지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와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한편, 주변인력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었다. 이러한 기업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임금불평등을 심화시켰다(금재호, 2013).

다음으로 지역별 임금불평등의 원인은 지역별 차이에 근거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별로 인구와 경제면에서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역별 임금불평등은 지역별 경제불평등을 밝히는 주요 변수이다. 이는 지역과 임금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임금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다(허식, 2007). 첫째, 근로자 질(the quality of workers)의 차이이다. 지역간에는 생산직, 기술직, 사무직 등 직종의 구성비가 다르고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학력, 근속, 경력 등에 차이가 있다. 둘째, 공기업의 비중, 노동조합의 유무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노조 조직부문의 근로자는 비조직부문의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다른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하여 공기업의 근로자는 동질의 사기업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셋째, 지역내 산업·직종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regional labor market characteristics)이 지역간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산업집중도에 따라 직종의 구성비가 다르고 이에 따라 지역간에 임금수준도 달라진다. 과거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산과 대구 지역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은 것은 이런 같은 관점에서 설명된다.

## 2.2. 선행연구 고찰

지역경제의 비교분석에서 임금은 지역경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이고, 지역경제의 주체인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그간의 지역별 임금불균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지역별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에 집중되어 왔다. 김주영 외(2009)는 임금규모를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지역별 격차, 공식과 비공식부문간의 격차, 성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라는 측면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를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별 임금격차와 관련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특정 도시의 높은 임금이 그와 같은 도시로 집중하는 종사자의 인적자본이 높기 때문인지, 그와 같은 도시의 집적의 경제 때문에 종사자가 해당 도시에서 근무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인지, 또는 해당 도시의 입지상 이점 때문에 해당 도시에 근무하면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종수(2017)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임금격차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Mincer(1974)의 임금함수 추정식을 활용하고, 임금함수 추정 후에 지역별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Oaxaca(1973)가 사용한 Oaxaca 분해식을 활용하였다. 추정결과, 남성, 높은 경력, 정규직 또는 상용직일수록, 노조가 존재할수록 임금이 높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교육연수, 건강상태, 정규직 여부, 노조 유무가 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비수도권 내에서는 근속연수와 상용직 여부가 임금상승에 기여하였다. 임금분해식에서는 생산성의 차이를 주는 것이 지역간 어메니티의 특성, 직종변수 등이며 보수의 차이를 주는 것은 개별적 특성, 교육연수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임금불균형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역별 임금불균형 혹은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가 몇몇 연구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김동수(2011)는 지역별 임금 수준과 지역 간 및 지역 내 임금격차를 광역도시통계권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역 내 임금격차 분석을 위하여 임금분포 상하위 각각 10%씩을 비교하고, 고소득 직업군의 평균임금과 저소득 직업군의 평균임금 간 격차의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광역도시통계권 간 임금수준은 지식기반 제조업보다는 주력기간산업이 집적된 광역도시통계권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광역도시통계권 간 임금격차는 2003년까지 개선되어 오다 이후 2008년까지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산업구조 및 특성에 따라 임금격차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광역시를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 광역도시통계권들의 경우 2003년 이후 상하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규

모가 큰 광역도시통계권일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지역내 임금격차도 큰 편이며, 고학력자들의 이동 요인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우영(2012)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간 임금격차를 재추정하고, 기존의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구조조사(OES)를 이용할 때 어떤 편의를 가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임금함수를 추정한 결과, KLIPS를 이용하여 얻어진 지역간 임금격차는 RES를 이용한 경우보다 과소 추정되며, OES를 사용할 경우에는 RES와 평균적인 임금격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개별 지역의 임금격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함수의 추정에 있어서 표본선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로 인한 지역간 임금격차의 왜곡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RES를 이용하여 일반 엔트로피 지수를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은 지역간 임금격차에 기인하기보다는 지역내 임금불평등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함수의 추정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격차는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거주자의 임금프리미엄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울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의 거주자는 마이너스 임금프리미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지역간 임금격차의 해소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임금격차 해소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지역별 임금불균형 결정요인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지역별 임금통계의 구축은 미흡하고, 이에 따라 지역 간 또는 지역내 임금불평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지역별 월평균임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율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역별 임금불평등을 측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지역별 발전격차의 측정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간 불평등 해소의 기본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3. 연구모형

####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 적용한 분석방법은 2가지로 임금불균형 측정을 위해 지니계수와 10분위분배율, 10분위 배율을 적용하였다.

첫째, 임금불균형을 측정하는 지수는 다양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임금불균형의 기본 공리를 만족시키며 로렌츠 곡선상의 비교와 같이 순위로 임금불균형을 비교하는 지수는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임금불균형 지수를 로렌츠일치 지수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로렌츠일치 지수 중 가장 널리 쓰이는 Gini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다양한 형태로 산출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Gini계수를 절대적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절대적 Gini계수나 극화를 나타내는 극화지수와 비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평균격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평균격차(AD)는 확률분포로부터 나온 두 독립된 수치에 대한 차이 값의 절대치에 대한 평균으로 정의되며,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된다.

$$D = \frac{1}{n} \sum_{i=1}^n \sum_{j=1}^n |y_i - y_j|$$

또한 평균격차는 절대평균격차(absolute mean difference) 또는 지니평균격차(Gini mean difference)라고 불리며, 절대적 임금불균형을 측정하는 절대적 Gini계수의 2배 값을 가진다.<sup>1)</sup>

$$\text{대적 지니계수} = \frac{1}{2n^2} \sum_{i=1}^n \sum_{j=1}^n |y_i - y_j|$$

일반적으로 Gini계수를 사용할 때 상대적인 임금불균형을 측정한다. 따라서 절대적 Gini계수를 평균값으로 나누어 정규화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text{상대적 지니계수} = \left\{ \frac{1}{2n^2 \mu} \sum_{i=1}^n \sum_{j=1}^n |y_i - y_j| \right\}$$

또한 평균격차를 그 집단의 평균값으로 나누어준 수치를 상대적 평균격차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ini계수의 2배 값을 가진다. 지니계수를 이용한 지역별 임금불균형 분석에서 지역별 불균형도는 0.4이상이면 임금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한다. 계수값이 0.3-0.35이면 불균형이 적은편이고 0.35-0.4이면 불균형을 보통으로 판단한다.

둘째, 10분위분배율은 인구 규모별 세입 순으로 10%씩 10개의 계층으로 나누어 최하

위 자치단체인 1분위부터 최상위 계층인 10분위까지 월평균임금 순으로 배치했을 때 임금 최하위 40%의 점유율을 최상위 20%의 임금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지역별 임금이 균형한 자치단체일수록 2에 가까워지고, 불균형한 자치단체일수록 0으로 수렴한다. 0.45이상이면 균형분배, 0.35~0.45는 중간 수준, 0.35이하이면 불균형한 것으로 분류한다.

$$0 \text{ 위분배율} = \frac{\text{최하위 40\%의 임금}}{\text{최상위 20\%의 임금}}$$

셋째, 10분위배율은 임금을 10등급으로 나누어 상위 10%를 하위 10%와 나눈 값으로 10분위배율값이 2이면 임금균형이 이루어진 자치단체가 최하위인 자치단체에 비해 2배 정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0\text{분위배율} = \frac{\text{최상위 10\%의 임금}}{\text{최하위 10\%의 임금}}$$

### 3.2.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였다. 이는 대규모의 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하고,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제공한다. 모집단은 만 15세 이상 인구로 표본규모는 전국 10,075조사구의 약 20만 1천 가구이다. 조사항목으로는 인적사항, 일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 등 36개 항목이며, 특히 응답자의 3개월 월평균 임금<sup>2)</sup>을 수집하고 있어, 그간 미흡하였던 지역별 임금통계를 수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활용된 지역별 3개월 평균임금 응답인원은 다음과 같다.



&lt;표 1&gt; 분석대상

(단위 : 명)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	16,023	15,916	13,845	13,749	13,742
부산	7,763	7,470	6,626	6,476	6,459
대구	5,071	5,095	5,053	4,911	4,834
인천	6,218	6,139	5,986	6,126	6,101
광주	3,495	3,524	3,476	3,275	3,280
대전	3,630	3,562	3,498	3,554	3,453
울산	3,344	3,317	3,247	3,104	3,094
경기	28,448	28,280	29,514	29,639	29,429
강원	9,490	9,682	9,621	10,048	10,046
충북	6,958	7,044	6,913	6,919	6,908
충남	9,312	9,228	9,499	9,342	9,324
전북	6,646	6,706	6,857	6,683	6,598
전남	8,890	8,827	9,120	8,969	8,974
경북	11,106	11,145	11,281	11,175	11,040
경남	10,831	10,898	10,801	10,585	10,455
제주	1,960	1,970	2,009	2,173	2,131

## 4. 분석결과

### 4.1. 지역별 월평균임금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평균임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 기준 전국 월평균임금은 232.57만원이다.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305.27만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197.48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과 대비하여 월평균임금이 높은 지역은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이고, 낮은 지역은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광역시가 광역도에 비해 월평균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월평균임금은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대비 2017년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울산(38.93만원 증가)이고, 가장 작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7.62만원 증가)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 이외에 대전, 제주 등의 월평균 임금 증가가 가시적이다. 이는 대전

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 이진으로 인한 과급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제주의 경우 정착인구의 증가, 활발한 관광객유치로 인한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액의 증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lt;표 2&gt; 지역별 월평균임금

(단위 : 만원)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대비 2017 증감
전국	209.59	213.86	221.41	227.49	232.57	22.99
서울	245.20	248.06	255.51	263.21	271.31	26.11
부산	199.67	208.32	213.76	221.72	224.61	24.94
대구	198.38	204.98	211.99	221.31	225.23	26.85
인천	205.98	214.73	224.23	230.30	233.02	27.04
광주	214.95	215.86	227.63	233.54	234.76	19.81
대전	218.95	223.32	233.65	242.73	250.13	31.19
울산	266.34	274.71	325.82	313.25	305.27	38.93
경기	224.77	230.42	234.90	242.63	250.72	25.95
강원	184.49	185.64	192.31	193.44	197.48	12.99
충북	191.87	195.12	199.88	207.34	215.98	24.11
충남	203.99	207.91	217.53	223.02	228.73	24.74
전북	181.33	182.89	187.98	197.90	202.68	21.35
전남	197.62	196.79	198.53	204.06	205.24	7.62
경북	187.84	190.49	201.73	208.60	213.69	25.85
경남	203.22	211.20	221.15	224.94	226.79	23.57
제주	173.38	180.52	189.40	199.54	204.13	30.76

## 4.2. 지역별 임금불균형

### 4.2.1. 지역별 임금 지니계수

지역별 임금불균형을 지니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지역에서 지니계수가 0.4이상으로 분석되어, 임금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특히 2017년 기준 서울, 경기 전남, 경북에서는 지니계수가 0.5이상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 기준 임금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북(0.535)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은 대전(0.449)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17년 지니계수가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대전(-0.064)이고, 가장 많이 악화된 지역은 경북(0.042)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니계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가시적인 임금 불균형 개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규모와 경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임금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표 3> 지역별 임금 지니계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대비 2017 증감
서울	0.513	0.538	0.510	0.504	0.500	-0.013
부산	0.492	0.493	0.459	0.515	0.462	-0.030
대구	0.484	0.480	0.478	0.476	0.469	-0.015
인천	0.449	0.451	0.432	0.477	0.473	0.024
광주	0.488	0.447	0.483	0.459	0.461	-0.027
대전	0.513	0.474	0.503	0.456	0.449	-0.064
울산	0.478	0.442	0.457	0.466	0.472	-0.006
경기	0.496	0.540	0.490	0.491	0.502	0.006
강원	0.546	0.473	0.495	0.502	0.491	-0.055
충북	0.467	0.471	0.488	0.489	0.483	0.016
충남	0.449	0.458	0.468	0.463	0.481	0.032
전북	0.474	0.465	0.485	0.469	0.456	-0.018
전남	0.500	0.505	0.525	0.505	0.503	0.003
경북	0.493	0.492	0.496	0.538	0.535	0.042
경남	0.457	0.491	0.470	0.480	0.477	0.020
제주	0.492	0.557	0.448	0.446	0.467	-0.025

주: 2013년 대비 2017년 지니계수가 개선된 경우 부호가 -임.

#### 4.2.2. 지역별 임금 10분위분배율

지역별 임금불균형을 10분위분배율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지역에서 10분위분배율이 0.35이하로 분석되어 임금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특히 2017년 기준 서울, 경기, 전남, 경북은 0.2이하의 10분위 분배율을 보여 최하위 40%의 임금과 최상위 20%간의 임금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임금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북(0.183)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은 대전(0.338)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17년 10분위분배율이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대전(0.180)이고, 가장 많이 악화된 지역은 인천(-0.094)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지역에서 10분위분배율이 지니계수분석과 같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특징적 개선지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 임금이 균형분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0.45 이상의 분배율에 이르러야 하나, 모든 지역이 중간수준인 0.35~0.4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4> 지역별 임금 10분위분배율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대비 2017 증감
서울	0.157	0.124	0.160	0.171	0.177	0.020
부산	0.191	0.192	0.282	0.150	0.262	0.071
대구	0.216	0.222	0.230	0.234	0.248	0.032
인천	0.313	0.282	0.373	0.211	0.219	-0.094
광주	0.200	0.327	0.211	0.297	0.281	0.081
대전	0.158	0.232	0.173	0.326	0.338	0.180
울산	0.232	0.387	0.327	0.268	0.245	0.013
경기	0.176	0.118	0.190	0.190	0.171	-0.005
강원	0.118	0.254	0.207	0.191	0.223	0.105
충북	0.245	0.236	0.198	0.193	0.209	-0.036
충남	0.333	0.303	0.253	0.268	0.221	-0.112
전북	0.245	0.279	0.227	0.272	0.328	0.083
전남	0.185	0.181	0.148	0.180	0.183	-0.002
경북	0.208	0.203	0.200	0.129	0.132	-0.076
경남	0.297	0.195	0.243	0.217	0.224	-0.073
제주	0.195	0.107	0.330	0.341	0.254	0.059

주: 2013년 대비 2017년 10분위분배율이 개선된 경우 부호가 +임.

#### 4.2.3. 지역별 임금 10분위배율

지역별 임금불균형을 10분위배율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분위 배율 분석결과, 모든 지역에서 최상위 10%의 임금이 최하위 10%의 임금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기준 서울, 경기, 강원, 전남, 경북은 30배가 넘는 임금격차를 나타냈다.

2017년 기준 임금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북(약 50배)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은 대전(약 12배)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17년 10분위분배율이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대전(-19.371)이고, 가장 많이 악화된 지역은 경북(22.727)으로 나타났다.

&lt;표 5&gt; 지역별 임금 10분위배율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대비 2017 증감
서울	32.538	40.000	30.000	30.000	30.000	-2.538
부산	25.000	25.000	16.250	37.500	19.048	-5.952
대구	23.857	20.875	21.164	23.611	21.250	-2.607
인천	14.118	15.060	11.000	22.500	22.520	8.402
광주	25.000	13.750	25.000	16.250	18.750	-6.250
대전	32.092	20.875	31.250	13.750	12.721	-19.371
울산	20.000	10.500	12.110	15.652	19.264	-0.736
경기	27.778	41.730	25.000	25.000	30.000	2.222
강원	50.000	20.000	32.000	36.000	37.500	-12.500
충북	18.750	20.000	26.667	27.500	26.250	7.500
충남	12.500	14.667	18.750	18.750	25.000	12.500
전북	20.000	22.000	30.000	20.833	16.667	-3.333
전남	28.571	33.333	43.253	33.167	33.333	4.762
경북	27.273	28.667	29.661	50.000	50.000	22.727
경남	15.000	25.250	21.250	25.000	25.000	10.000
제주	28.333	59.667	15.385	14.286	21.333	-7.000

주: 2013년 대비 2017년 10분위배율이 개선된 경우 부호가 -임.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득양극화와 임금분배 악화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그 간의 연구의 대상이 전국단위이거나 내용이 임금불균형 결정요인에 국한된 것을 지적 하며, 지역별 임금불균형 현황을 다양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하였다. 지역별 임금 불균형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활 용하였으며, 불균형분석은 지니계수, 10분위분배율, 10분위배율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지니계수를 활용한 지역별 임금불균형은 모든 지역에서 지니계수가 0.4이상으로 분석되어 임금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니계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가시적인 정책적 성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 대전이 타지역에 비해 임금불균형이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이 임금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0분위분배율을 활용한 지역별 임금불균형은 모든 지역에서 10분위분배율이

0.35이하로 분석되어 임금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임금이 양호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0.35~0.45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 대부분이 0.3이하의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 대전이 0.338의 수준을 보여 타지역에 비해 임금불균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이 0.132로 나타나 최하위 40%의 임금과 최상위 20%의 임금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0분위배율을 활용한 지역별 임금불균형은 모든 지역에서 최상위 10%의 임금이 최하위 10%의 임금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배 이상, 심각한 지역의 경우 50배 이상의 임금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2017년 기준 약 12배의 임금격차를 보여 타지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은 약 50배의 임금격차를 보였다.

세가지 분석을 종합한 결과, 모든 지역의 임금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가지 분석 모두에서 최근 5년간 임금불균형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개선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지역별 임금불균형은 대전이 타지역과 비교해 양호하고, 경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지역과 비교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대전도 임금불균형 수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 주

- 1) 2배 값을 가지는 이유는 Gini계수의 경우 두 개 수치의 차이 값을 한번만 계산하여 구하나 평균격차는 정의상 두 번 모두 계산하며 상대적 Gini계수를 정의할 때도 같다.
- 2)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2013년, 2014년은 월평균임금, 2015년, 2016년, 2017년은 3개월 월평균임금으로 조사되었음.

## 참 고 문 헌

- 금재호, 2013 임금불평등과 고용, 노동포커스
- 김동수, 2011, 광역도시통계권별 소득격차 추이 분석, 산업연구원
- 김우영, 2012,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2(1), pp.1-28.
- 김주영·조동훈·이변송·조준모·이인재, 2009, 한국의 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 이중수, 2017, “지역 간 임금격차에 대한 고찰”, 노동정책연구, 17(2), pp.143-171.
- 성재민, 2015, 임금불평등에 대한 연구동향, 국제노동브리프.
- 성재민, 2014, 임금불평등 추세와 원인에 대한 연구, 노동연구원.
- 장연주·이민환·황한식, 2011, “한국의 지역별 가구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지역사회연구, 19(3), pp.1-20.
- 하창현, 2007,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허식, 2007, “지역간 임금격차에 관한 요인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0(1), pp.1~16.
- 홍민기, 2017, 소득불평등: 현황과 대책, 노동리뷰.
- Dinardo, John, Nicole M. Coudin, and Mathilde Gaini, 1993, “Decreasing Wage inequality in France 1967-2009: in search of the culprit”, CREST-INSEE Working Paper.
- Juhn, Chinhui, Kevin M. Murphy and Brooks Pierce, 1993, “Wage Inequality and the Rise in Returns to Skill”,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3), pp.410-442.